

# 升降의 原動力에 관한 考察

- 脾胃와 命門을 中心으로 -

鄭 昊 鎮

慶熙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原典學專攻

## A study on the motive power of Ascending and Descending(升降) in the human body.

- In priority of the Spleen & Stomach(脾胃) and Vital gate(命門) -

The Ascending and Descending(升降) theory is the one of oriental medical theories and by the theory, we can understand physiology & pathology of human body and keep to the same principles in the confused terms and various medical theories. This Ascending and Descending(升降) theory is different from higher conception of a singular circulation like Ki-monism(氣一元論), to the differentiated conception of Ascending and Descending(升降) that is performed in organs(臟腑) & meridian(經絡). Among the differentiated Ascending and Descending(升降) theories, ancient medical scholars have made much of the five Jang organs(五臟), moreover they have expressed Spleen & Stomach(脾胃) & Vital gate(命門) on the motive power of Ascending and Descending(升降).

Therefore, I examined the conception of the Spleen & Stomach(脾胃) & Vital gate(命門) in the point of motive power of Ascending and Descending(升降). In this study,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1. Movement of universe is based on the Ascending and Descending(升降) of its clean & unclean Ki(氣). And all things are created by the interaction, that is represent of Ascending and Descending(升降), between heaven & earth. Therefore all things are separated from the external world and Coming & Going(出入) appeared. Besides, according to appearance of its Sin(神), an individual is divided into Sinki(神機) & Kilip(氣立).

2. Ascending and Descending(升降) as well as Coming & Going(出入) are represent of the dynamic changes of all things and among the both, Ascending and Descending(升降) means the internal movement of Ki(氣). Because of these facts, Ascending and Descending(升降) theory is advanced to ascending water & descending fire(水升火降) or Heart & Kidneys complement each other(心腎交濟) by ancient medical scholars. And Coming & Going(出入) is effected to emphasize internal & external changes of Ki(氣).

3. In the contents 『Naekyung(內經)』, Dong-won Lee(李東垣) took note of the four seasons' changes that are continued by the Ascending and Descending(升降) between heaven & earth, also he took note of the fact that movement of human body's organs(臟腑) is

represent of Ascending and Descending(升降). As a result of such recognition, he understood the basis of Ki(氣)'s singular movement in the human body is Ki(氣) of the Stomach(胃氣), as well as the fact that such singular movement of Ki(氣) exists, just like Ki-monism(氣一元論), in the Ascending and Descending(升降) of universe. And he understood as following: human body is a site that a singular Ascending and Descending(升降) of Ki of the Stomach(胃氣).

4. Vital gate(命門) has substantial & actual meanings at the same time. The former means philosophical conception of life, just like a gate that life can appear or disappear. The latter means inborn-immaterial vitality(先天無形之元氣) including organs(臟腑) & meridian(經絡), and the action of the vitality appears in the whole body, moreover the action is represent of Yang of the kidneys(腎陽). According to original YumYang(元陰元陽), heart & kidneys(心腎) are represent of water & fire(水火), in the human body Water and fire complement each other(水火交濟) appears by action of heart & kidneys(心腎). And, because of emphasis on the dynamic movement of life, Ascending and Descending(升降) progressed in ascending water & descending fire(水升火降). In this system, Vital gate(命門) is the motive power of the Ascending and Descending(升降) in the body.

5. As a matter of course the Spleen & Stomach(脾胃), taking charge of the supply of food & drink, transport Ki(氣) into organs(臟腑) through the Ascending and Descending(升降). But if we have extended viewpoint, the singular circulation of Ki of the Stomach(胃氣) is understood in a range of Vital gate(命門)'s activity. Therefore the Spleen & Stomach(脾胃) are the part that absorption of food & drink, also creation of Body fluid(津液) are performed in the Spleen & Stomach(脾胃). In this point we can understand the following fact that the Spleen & Stomach(脾胃) provide material factor for the beginning of the Ascending and Descending(升降), and that the genuine power of the Ascending and Descending(升降) is motivated by Vital gate(命門).

Key Words : Ascending and Descending(升降) theory, Ki-monism(氣一元論), Dong-won Lee(李東垣), the Spleen & Stomach(脾胃), Vital gate(命門)

## 1. 序論

韓醫學에서 개별적인 個體 상호간의 氣의 交流를 설

·접수 : 2000년 1월 16일    채택 : 2000년 2월 5일  
·교신저자 : 정호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대한불교  
수도원  
(043-254-2795, omdjhi@freechal.com)

명할 때에는 內外<sup>1)</sup>의 出入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  
반적이며, 이 때의 개체라는 것은 그 크기의 대소에 관

1) 內外라는 용어는 완전한 하나의 독립된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분할 때 쓰여지는 것이 바른 의미이며, 表  
裏는 독립된 개체 자체에서 외부와의 교환된 氣가 개  
체의 핵심 속(core)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내외라는 의미가 '기준이 되는 정중선에서 거  
리가 좀 더 멀거나(lateral) 가까운 경우(medial)'를  
포시할 때도 이용되는데 여기서는 제외시키도록 한  
다.

계없이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개별적인 이치<sup>2)</sup>를 갖춘 小宇宙를 구성하고 있다고 봐야겠다. 그러하다면 개체의 大小를 莫論하고 자체 內部의 氣의 운동 변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升降論이라 하겠는데, 이러한 升降論은 運氣七篇을 포함한 『內經』의 여러 편에서 天地와 人體의 上下升降에 관한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이는 韓醫學의 치료방향을 결정하여 주는 인체의 生理·病理 상황을 나타내어 주므로 더없이 중요한 부분으로 위치하고 있다.

升降에 관하여는 氣一元論<sup>3)</sup>인 一氣의 순환이라는 큰 개념에서부터 구체적인 臟腑·經絡에서의 升降과 升降의 氣機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소 즉, 天地 四時變化의 인체에 대한 영향(運氣) 등으로 발전되어 나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前者는 五臟을 위주로 설명하는 방법이 주로 다루어졌다. 韓醫學에서의 升降論의 위치가 이리하다고 볼 때, 天地之氣가 升降하는 것과는 달리 人體가 가지는 升降運動은 升降의 氣機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을 요구하게 될 것인데 그 升降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根源하는가를 몇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升降論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醫史學的으로 볼 때 唐代까지는 『內經』에서의 五行相生相剋에 의한 臟腑間的 관계를 중시하고 五臟 중에서는 心肺의 작용을 중시하는 입장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宋代에 오면서 嚴用和의 '補脾不如補腎'에 대한 주장과 아울러 心腎不交에 대한 기초적인 임상응용이 나타나고, 金元대의 臟腑學說의 발전아래에서 李東垣의 脾胃論과 朱震亨의 相火에 대한 이론전개로 인체에서의 脾胃에 관한 작용이 두드러지게 되었으며, 明代에 와서는 命門學說의 형성과 함께 '腎爲先天之本 脾爲後天之本'이라는 李中樞의 주장에서도 나타나듯이 脾胃와 腎(혹은 命門)이 인체에서 가지는 중요도를 인식하게 되었다.<sup>4)</sup> 물론 이러한 이론들이 모두 升降이라는 하나의 체계 아래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升降論이라는 하나의 관점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본다면 醫史學

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학파간의 論爭이나 同一한 用語에 관한 혼재된 이론들을 하나로 꿰어보는데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특히 脾胃와 命門을 중심으로 升降의 原動力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는데 먼저 『內經』에 논술된 出入과 升降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升降論의 대강을 天地에서 시작하여 그에서 본받은 人體의 順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는 升降의 原動力에 대하여 李東垣의 脾胃를 중시하는 관점과 命門學說로 종합되는 命門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 그리고 脾胃와 命門을 동시에 두고 보았을 때의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II. 本論

韓醫學의 이론체계 형성은 古來로의 東洋哲學思想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데, 그것을 몇 개의 큰 개념으로 나누어 본다면 우주의 근원 혹은 우주 변화의 규율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의 '道'와 그 우주 만물의 생성에 현상적, 물질적인 기초를 이루는 '氣', 그리고 우주의 구체적인 생성변화 원리의 이론체계가 되는 '陰陽五行'으로 대별된다고 볼 수 있다.<sup>5)</sup>

이러한 이론 체계의 발달하에서 보면 天地로 대표되는 宇宙와 天地之氣의 交感에 의한 결과로서의 萬物, 그 만물 중에서도 天地의 道가 具現되어 나타나는 人을 두어서 三才<sup>6)</sup>를 이루게 되는데, 그 인간과 天地間 구성 원리의 比類取象의 결과인 天人相應(혹은 天人合一)<sup>7)</sup> 思想은 한의학의 기본 사상이 되는 동시에 西洋

5) 金完熙 『한의학의 형성과 체계』 p.73

6) 이렇게 天地의 交感의 결과로 생긴 萬物 가운데 하나로서의 인간이지만 三才라고 할 때는 그 개념이 天地에 從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별된 구성원리를 가진 의미로 표현되는데, 이는 『周易繫辭上 二章』의 '六爻之動 三極之道也'에 대해 朱子가 '極은 至也니 三極은 天地人之至理요 三才是 各一太極也라'라고 註한 것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7) 『素問三部九候論』에서의 '天地之至數는 始於一하여 終於九焉하니 一者天이오 二者地이오 三者人이니 因而三之하여 三三者九니 以應九野니이다 故人有三部하고 部有三候하여 ... 三候者는 有天과 有地와 有人也니

2) 朱子가 말한 '一物所具之理' 또는 '一物一太極'의 의미도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3) 여기서 '氣一元論'이라는 말은 理氣二元論 등에 상대되는 뜻이 아니라 一氣의 흐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의'자도 그러한 의미에서 붙였다.

4) 洪元植 『中國醫學史』 p.175, 194, 265

醫學과는 대별되는 韓醫學의 특징을 이루게 된다.

韓醫學의 기본 사상이 집약되어 있는 『內經』에서도 이러한 天人相應 思想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천인상응의 구체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升降論에 대한 내용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內經』에서 살필 수 있는 升降論의 본지는 인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보다는 보다 큰 天地之氣의 交流와 萬物의 생명 활동에 대한 논술을 통하여 視野의 擴張을 꾀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生命活動의 基本形式 - 升降 出入

『內經』에서는 우주의 운동변화는 天地陰陽之氣의 升降 出入에 의하여 수행된다고 인식하였으며 인체도 이와 상응한다고 인식하였으니

出入廢則神機化滅 升降息則氣立孤危 故非出入則無以生長壯老已 非升降則無以生長化收藏 是以升降出入 無器不有 故器者生化之宇 器散則分之 生化息矣 故無不出入 無不升降.

『素問·六微旨大論』<sup>8)</sup>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出入은 하나의 개체<sup>9)</sup>와 다른 개체, 쉽게 말해 我와 他의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며, 我와 구별되는 外部의 氣(六氣)와도 구분되므로 예를 들어 外部의 春夏秋冬에 대해 我는 독립적으로 生長壯老死가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한 것이므로 我的 主體의인 神을 부각시키게 되니 神機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升降은 我와 他의 구분이 불명확한 것을 주로 말하니 外部가 春夏秋冬으로 生長化收藏의 변화가 있으면 他와 구별없는 我도 그와 마찬가지로 春夏秋冬

이다 ... 三部者는 各有天하며 各有地하며 各有人하니 三而成天하고 三而成地하고 三而成人하야 ...' 라는 표현도 天地人 三才를 근간으로 하는 天人相應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p.244

9) 形體를 갖추어 生化의 根據를 이루는 단위를 器라고 표현하였으니 곧 萬物을 표현함이다.

에 맞추어 生長化收藏이 일어나는데, 神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단순한 氣의 이동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니 여기에서 氣立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天地 자체의 운동과 萬物 생성이후의 개체(器) 운동 사이에는 의미파악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神機之物은 內外出入만으로 그 생명현상을 나타내고 氣立之物은 上下升降으로만 자체의 생명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誤認하여서는 안되며, 전체 자연계 생명활동의 발현상을 살피는 데 神을 좀더 중점으로 보느냐 혹은 氣를 좀더 중심으로 설명하는냐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둘째, 升降과 出入의 개념에도 나타나는 의미의 범위와 先後의 존재여부에 차이가 있다.

i) 升降이라는 天地之氣의 交感의 결과로 나타나는 萬物의 생성이 우선하고, 그에 따른 외부와의 구분에 의해 개체(自)와 外界(他)와의 出入이 그 후에 이루어진다.

ii) 天地交感의 결과물인 만물에는 그의 母胎가 된 天地를 그대로 닮아 나타나는 升降이 있으나 i)과 같은 先後 개념이 흐리고 升降과 出入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神機와 氣立에 대하여 좀더 살펴보면

“根於中者 命曰神機 神去則機息 根於外者 命曰氣立 氣止則化絕”『素問·五常政大論』<sup>10)</sup>

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根於中者'과 '根於外者'를 간단한 예를 들어 말하자면 植物과 動物로 말할 수 있다. 뿌리를 外部에 두고 있다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植物이 그 뿌리를 體外的 땅속에 박아두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外部의 氣의 변화에 順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그에 반해서 動物들은 뿌리(사람으로 보자면 뿌리는 외부에서 생산된 穀氣를 吸收하는 六腑로 볼 수 있다.)를 몸안에 거두어

10) 洪元植, 앞의 책 p.257

들어 외부 氣의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고, 나아가 외부의 변화상에 능동적으로 거스를 수 있으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內部(주로 五臟)에 藏하고 있는 主體的인 神이 植物 보다 잘 발현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외부의 변화상에 거스를 수 있는 것은 내재되어있는 主體的인 神이 외부변화에 順應하는 植物의 神보다 강하다'라고 하지 않고 '內在된 神이 잘 발현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고찰해보아야 할 부분이다. 즉 高度로 발달 분화되어 움직이는 생명체나 혹은 땅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草木이던지 그들이 지닌 神의 有餘不足 함에 의하여 神機나 氣立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天賦의 神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이 動靜 어느 쪽에 偏在되어 나타나 특징지워지는 것으로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그리고, 張介賓의 神機와 氣立에 대한 다음과 같은 표현은 前述한 바를 敷衍하고 있다.

物之根於中者 以神爲之主 而其知覺運動 卽神機之所發也 故神去則機亦隨而息矣 物之根於外者 必假外氣以成立 而其生長收藏 卽氣化之所立也 故氣止則化亦隨而絕矣 所以動物之神去卽死 植物之皮剝卽死 此其生化之根 動植之有異也 六微旨大論曰 '出入廢則神機化滅 升降息則氣立孤危 故非出入 則無以生長壯老已 非升降 則無以生長化收藏' 卽根於中外之謂<sup>11)</sup>

만물 중에서 根을 體內에 두는 것은 神을 主로 삼으니, 그것의 知覺運動은 곧 神機가 發動한 것이므로 神이 사라지면 그 운동의 틀도 따라서 멈추게 된다. 만물 중에서 根을 體外에 두는 것은 반드시 外部의 氣를 빌어서 이루어진 것이니, 그것의 生長收藏은 곧 氣化의 결과이므로 氣가 그치게 되면 氣化도 따라서 끊기게 되는 것이다. 動物은 神이 사라져 버리면 그 動物은 죽고, 植物은 껍질이 벗겨지면 그 植物이 죽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 生化의 根이 動植物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六微旨大論」에서 말한 '出入廢則神機化滅 升降息則氣立孤危 故非出入 則無以生長壯老已 非升降 則無以生長化收藏' 은 곧 根을 體內에 두었느냐 體外에 두었느냐를 말한 것이다.

11) 張介賓, 『類經』p.584

그런데 여기서 張介賓은 動物과 植物이라는 예를 들었으나 이것은 그 대별되는 특징을 말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며 동물 또한 여러 발달된 단계가 있듯이, 動物을 神機라 하고, 植物을 氣立으로 一對一의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動物의인 生理體系와 植物의인 生理體系로 보는 것이 전체 자연계에 대한 관찰에는 더욱 용이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天地의 上下升降으로 대표되는 天地交感으로 萬物[器]이 생성되며 그것은 크게 神機氣立으로 대분되고, 동시에 개체[器]내에서도 크게 두 가지 방식 즉, 동식물적인 특성을 동시에 갖춤으로서 생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升降과 出入이 萬물이 지니는 생명활동의 다양한 변화상(生長化收藏, 生長壯老死)을 일으키는 기본 형식이 되고, 그 중에서도 升降이 차지하는 위치가 개체내의 氣의 변화상이라는 면에서 後世 醫家들의 논술에서도 水升火降이나 心腎交濟 등의 上下升降理論으로 발전하게 되는 하나의 因由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 內經에서의 升降論

### 1) 天地運氣의 上下升降

『素問六微旨大論』에서는 天地 運氣의 升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帝曰 其升降何如 岐伯曰 氣之升降 天地之更用也 帝曰 願聞其用何如 岐伯曰 升已而降 降者謂天 降已而升 升者謂地 天氣下降 氣流于地 地氣上升 氣騰于天 故高下相召 升降相因 而變作矣<sup>12)</sup>

여기에서는 주로 天地의 運氣를 주 대상으로 삼아서 升降을 이야기하는데 "天地更相爲用"라고 말하듯이, 한 체계 내에서의 兩極(天, 地)이 형성<sup>13)</sup>되면 그 兩極을

12) 洪元植, 앞의 책 p.244

13) 『素問陰陽應象大論』의 '天地者 萬物之上下也', '清陽

사이로 氣의 교류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것의 특성은 上升과 下降에 있어 陽이 極하면 陰으로 變하고, 陰이 極하면 陽으로 變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運動의 極이 되는 조건에 이르게 되면 정반대의 운동을 보이는 陰陽의 相互 轉化하는 성질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승강운동의 형성은 마치 如環 無端한 인체의 經絡 처럼 끊이지 않고 서로가 상대를 불러오는[相召] 것처럼 보이므로 결국은 分化되어 있으면서도 부단히 統一을 지향하고 있는 一氣의 分化된 象으로 볼 수 있는데, 인체에 나타나는 이러한 一氣의 근본에 대한 理解가 後世에 脾胃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과 命門을 그 주체로 보는 관점으로 크게 대별되고 볼 수 있다.

또한 『素問·方盛衰論』에서는 “至陰虛 天氣絕 至陽盛 地氣不足”라 하여 升降에서의 天地氣交에 偏盛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표현하였는데, 이에 대해 張介賓은 『類經』에서

至陰至陽 卽天地之道也 設有乖離 敗亂乃至 (六微旨大論曰 “氣之升降 天地之更用也 升已而降 降者謂天 降已而升 升者謂地 天氣下降 氣流於地 地氣上升 氣騰於天”) 故易以地在上而爲泰 言其交也 天在地上而爲否 言其不交也 此云至陰虛者 言地氣若衰而不升 不升則無以降 故天氣絕 至陽盛者 言天氣若亢而不降 不降則無以升 故地氣不足 蓋陰陽二氣 互藏其根 更相爲用 不可偏廢 此借天地自然之道 以喻人之陰陽貴和也<sup>14)</sup>

至陰至陽은 天地의 道이니 만약 어그러지거나 벗어남이 있으면 敗亂이 이를 것이다... 『易』에서 地[坤卦 ≡]가 天[乾卦 ≡] 위에 있는 것을 泰卦로 삼았으니 天地의 교류를 말한 것이요, 天[乾卦]이 地[坤卦] 위에 있는 것을 否卦로 삼았으니 天地가 교류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至陰이 虛하다는 것은 地氣가 衰하여 升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니, 升하지 못한 즉 降하지 못하므로 天氣가 끊기는 것이며, 至陽이 盛하다는 것은 天氣가 亢進되어 내려오지 않음을 말한

것이니, 降하지 않으면 升하지 못하므로 地氣가 부족해지는 것이다. 대개 陰陽 二氣는 서로 그 뿌리를 저장하여 갈마들여 서로 用을 삼으니 한쪽만 치우쳐 그만둘 수 없으니, 이는 天地가 스스로 그러해지는 道를 빌어서 사람의 陰陽에도 調和가 중요함을 譬喩한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周易』의 泰卦와 否卦를 제시하여 天地之氣의 氣交를 표현하고 또한 人體 陰陽之氣의 調和도 이같은 천지의 승강에서 올바른 법도를 본 받아야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天氣上爲雲 天氣下爲雨 雨出地氣 雲出天氣”라 하여 天地之氣의 媒介體인 雲雨를 예로 들어 각각 天氣와 地氣를 發揚시키는 현상적인 면을 표현하였으니 이는 天地之氣의 상하운동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2) 人體 내의 上下升降

### (1) 升降의 기본양상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清陽出上竅 濁陰出下竅”라 하여 清陽과 濁陰의 升降을 제시하였다. 이 내용은 精微로운 清陽은 上七竅로 올라가서 耳目口鼻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濁陰은 下二竅(二陰)로 배출되는 것을 표현하였으니, 이는 인체의 기본적인 승강을 말한 것이다. 天地之氣의 上下升降이 清濁의 차이를 근간으로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때 이러한 부분은 天地間의 升降에 그대로 應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清濁에 의한 그야말로 자연적인 흐름이 아니라 인체에서는 필요에 의한 인위적인 승강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升降의 정상적인 상태가 흐트러지면 疾病이 발생하게 된다.

『素問·太陰陽明論』에서는 기본적인 陰陽之氣의 經絡에서의 升降과 그 升降에 대한 病變에 대하여 “陰氣從足上行至頭 而下行循臂至指端 陽氣從手上行至頭 而下行至足 故曰 陽病者 上行極而下 陰病者 下行極而上”이라 하였는데 이는 宇宙 天地之氣의 升降이 인체에 있어서는 陰陽之氣의 經絡 升降으로 그대로 合一로서의 표현이며, 그것의 질병양상은 - 陰陽의 기운이 偏盛해가는 방향으로 病이 발전하므로 - 陽病은 陽의 성질이

爲天 濁陰爲地, '積陽爲天

積陰爲地' 등의 표현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4) 張介賓 앞의 책 p.103

偏盛하면 上行한 후 極에 달하면 下行하며, 陰病은 그 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남을 말한 것이다.<sup>15)</sup>

## (2) 升降의 兩極과 左右 通路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天地者 萬物之上下也”라고 하고 “積陽爲天 積陰爲地”라 하여 天地를 宇宙의 兩端으로 설정하여 上下의 구분을 陰陽으로 대별하였고, “水火者 陰陽之徵兆也”라고 하였으니 陰陽의 부림을 받는<sup>16)</sup> 水火가 작용면에서 上下에 위치함을 본다면 人身에서도 五行의 水火에 해당하는 臟이 上下에 위치하여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先天의 天地乾坤(體)이 後天에서 水火의 작용(用)으로 陰陽의 활동을 나타냄을 표현한 것이니 水火는 陰陽의 구체적인 象이며, 인체 승강에서도 上下兩極으로 陰陽, 水火의 표현이 나타난다.

이 같은 내용은 『周易』에서도 그 맥락을 같이하니 『周易·上經』의 30卦가 天地(父母)인 乾卦와 坤卦로 부터 시작하여 日月(水火)인 坎卦와 離卦로 마쳐서 先天을 나타내고, 『周易·下經』의 34卦에서는 少男(≡艮) 少女(≡兌)가 만나는 澤山咸卦와 長男(≡震) 長女(≡巽)가 가정을 이끌어 가는 雷風恒卦로 시작하여 물과 불이 서로 사귀는 水火既濟卦와 火水未濟卦로 마쳐서 後天을 나타내고 있는 것<sup>17)</sup>에서도 보듯이, 『周易』의 전체 순서가 乾坤으로 표시되는 體가 坎離의 用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伏羲八卦에서의 上下에 乾坤(天地)이 위치하고, 文王八卦에서는 上下에 坎離(水火)가 위치하는 것을 보아도 本體가 作用으로 드러날 때에는 水火가 上下로 배치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上下가 나뉘고 난 뒤에는 그 上下의 氣가 지나다니는 통로를 설정하여야 하겠는데 이를 평면적으로 본다면 左右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左右에 대한 上升·下降의 방향설정은

“左右者 陰陽之道路也” 『素問·陰陽應象大論』

15) 朴贊國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注釋(上) p.450

16) 朴贊國 앞의 책 p.105 ‘徵兆라 할 때 徵은 부림을 받는다는 뜻이고, 兆는 부림을 받아 일을 드러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17) 金碩鎭 『大山周易講解(上經)』 p.21

“陽從左 陰從右” 『素問·方盛衰論』

“上者右行 下者左行” 『素問·五運行大論』

과 같은 표현들을 종합하여 보면 左는 陽氣가 上升하는 통로이며, 右는 陰氣가 下降하는 통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太極에서 갈라진 陰陽의 運動이 ‘左旋而上升하고 右旋而下降’하는 원리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素問·天元紀大論』에서 “金木者 生成之終始也”라고 하였으니 金木은 東西方의 左右를 나타내는 것으로, 左右는 上下의 氣가 교통되는 통로인 것이다. 그러므로 上下의 氣交가 좌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만물이 化生하는 많은 변화상을 나타내니 그것을 생성의 끝과 시작이라고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從陰引陽 從陽引陰 以右治左 以左治右”라고 하였으니 이는 左右 金木의 통로를 疏通시켜 上下 升降의 막힘을 열어준다는 것으로 승강론이 적극적으로 治療에 응용된다는 한가지 표현이다.

## (3) 人體 升降에서의 五臟의 위치

여기서 인체의 升降을 논한다면 陽氣는 上部에서 陰化되면서 下降하고 陰氣는 인체 下部에서 陽化되면서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五臟위주로 살핀다면 腎에 저장되어있던 陰中之陽氣가 肝의 湧出力에 의해 陽氣로 활성화되고, 心에 갈무리 되어있던 陽中之陰氣는 肺의 肅降作用에 의하여 아래로 이끌려 내리면서 陰氣로 沈藏하게 된다. 그리고 脾는 土에 배속되어 승강의 중심에 자리잡게 되는데 『素問·刺禁論』의 “肝生於左 肺藏於右 心部於表 腎治於裏 脾爲之使”<sup>18)</sup> 과 같은 표현에서 보듯이 肝의 湧出力은 주로 왼쪽으로 보였고, 肺의 肅降이 일어나는 쪽은 오른쪽으로 보았으며 승강의 兩極에 해당하는 心腎은 각각 上下(表裏로 표현되어 있으나 내용상 上下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로 나타내고 있으니 前述한 승강의 대체에 관한 부분과 人身 五臟에서의 上下左右, 心腎肝肺의 연결이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18) 洪元植 앞의 책 p.190

또한 여기서 左右의 肝肺와 上下의 心腎에 대한 表裏 개념(上記한 『素問刺禁論』에서의 表裏와는 구분됨)으로의 구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心腎이 각각 上下에 위치하여 升降의 兩極을 형성하고 肝肺가 구체적인 氣의 升降의 통로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心腎이 陰陽의 徵兆로 나타난 水火의 근본 臟器라고 하는 것에 대비할 때 肝은 '體陰而用陽'이라 하고 肺는 太少陰陽의 四象의 配屬에서도 少陰이나 太陰으로 異見이 생기고 收斂을 위해서는 必要惡의 肅殺이 공존 하듯 肝과 肺는 陰陽의 혼재된 통로의 의미를 살필 수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表裏로 나눌 때도 心腎은 좀더 裏에 가깝고, 藏血과 疏泄이라는 肝의 기능과 收斂과 肅降이라는 肺의 작용에서도 나타나듯이 肝肺는 직접 외부와 가까운 表[表]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脾는 五行의 속성상 土에 배속되듯이 나머지 四臟의 관계를 仲裁하고 緩衝 調節하는 역할을 하는데 좀더 확장시켜본다면 木火金水の 肝心肺腎이라는 氣가 돌아가는 체계 즉, 현상계에 對比하여 현상계 裏面에서 작용하는 精神的인 측면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점은 五臟의 情志作用을 분류한 것에서도 살필 수 있다. 즉, 脾에 思를 배속시킨 것도 氣의 升降으로 표현되는 怒·喜·悲·恐과는 달리 氣의 方向性이 포함된 차원이 아닌 動靜이라는 좀더 上位概念으로 나타난 것도 裏面적인 정신부분을 좀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歸脾湯에서의 '脾'字의 의미도 이러한 뜻에서 살펴볼 수 있다.

### 3. 升降의 原動力에 관한 견해

醫史學的으로 볼 때, 다양한 醫家들의 주장을 거듭 되어 오면서 升降論도 이론 체계가 더욱 넓어지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완전히 다른 이론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즉, 上下로 水火가 위치하고 左右로 木金이 자리를 잡으면서 五行의 속성상 上下에는 南方心火와 北方腎水 그리고 左右에는 東方肝木, 西方肺金이 위치하게 되고, 腎의 陽氣가 肝의 湧出力과 脾氣의 升清작용으로 상승하고, 心火는 心의 蓋가 되는 肺金의 宣發과 肅降 그리고 胃의 降濁 작용에 의해 下降하는 臟象學

的인 인체내 臟腑間的 升降之機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대부분 五臟을 위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것은 六腑가 각각의 表裏를 이루고 있는 五臟과 일정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해에 큰 어려움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升降의 上下左右가 나뉘어 지고 나서는 그것의 活動 根源을 어디로 볼 것이냐? 라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여기에서 많은 이견이 제시될 수 있겠는데 필자는 이를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그 하나는 李東垣을 중심으로한 脾胃가 인체 升降의 중요부분을 차지한다는 관점이고, 두번째는 明代에 盛行한 命門學說에 기초한 命門이 升降의 승강의 주가 된다는 관점이며, 세번째는 中宮 脾胃와 下焦 命門의 작용을 동시에 두고 연관성을 찾는 관점이 그것이다.

#### 1) 脾胃를 중요시하는 관점(東垣의 이론을 중심으로)

東垣은 『內經』의 내용중 天地의 升降에 의해 四季의 春生·夏長·秋收·冬藏變化가 그치지 않게되며, 그에 의한 臟腑의 작용 또한 升降으로 표현된다는 것과 陰陽 清濁升降의 이론으로 생리를 설명한 것 및 升降의 실조에 의해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 등에 주목하였는데, 이러한 『內經』의 논지 위에 자신의 독창적인 이론을 세웠으니 그 결과물이 바로 『脾胃論』이다.

그는 인체에 있어 脾胃의 升降 기능을 매우 중시하여 氣化作用과 升清·降濁은 脾胃가 主軸이 된다고 논술했다. 따라서 升降에 이상이 발생하는 병은 脾胃로부터 발생하므로 肝·腎·心·肺의 有餘·不足을 補瀉함에는 脾胃를 補하는 藥으로써 爲主해야 한다고 했으며, 그 중에서도 脾胃의 陽氣升發을 중요시하였다. 또한 陽氣가 升發하게 되면 陰火가 自安하게 됨을 강조하여 補益脾胃, 升發元氣, 潛降陰火시키는 治法을 使用하였는데<sup>19)</sup>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水穀 受納과 運化機能으로의 脾胃

脾胃가 升降에서 根源의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東垣

19) 裘沛然, 中醫歷代各家學說, p. 95-99

의 醫論 以前에 먼저 周知해야 할 사실은 脾胃 그 자체가 五臟 六腑중의 하나로서 승강에서의 역할이전에 단순히 外部의 氣(水穀之氣)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運化하는 기능이다. 개체내부의 생명활동을 升降 중심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內外로 出入하는 구체적인 氣의 변화가 없다면 공을 넣지 않고 맷들을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현상은 升降이나 出入의 일면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며 서로에게 필연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脾胃의 水穀之氣를 흡수하는 기능은 인체라는 개체 내부로의 氣의 이동, 즉 內外 出入의 대표격인 것이다. 앞에서 말한 天地의 清濁한 氣의 上下升降으로 대표되는 天地 交感의 결과로 萬物이 생기는 것이 우

말하지는 않았으나 포괄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

## (2) 升降의 原動力이 되는 脾胃

東垣은『脾胃論·天地陰陽生殺之理在升降浮沈之間論』에서 天地自然의 운동변화하는 형식은 升降浮沈의 변화로 표현되고 있으며, 아울러 天地의 이러한 변화의 법칙이 인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논리를『素問·陰陽應象大論』과『素問·六元正紀大論』을 인용하여 펴고 있으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東垣은『內經』에 나타나있는 天地의 升降運動에 의해 四季의 生長收藏하는 變化가 그치지 않게 되며, 그에 의한 臟腑運動 또한 升降浮沈의 運動形式으

	·天以陽生陰長 ·歲半以前은 天氣主之 ·升浮하는 作用을 하는 時期 ·春(溫和) 夏(暑熱)	·地以陽殺陰藏 ·歲半以後는 地氣主之 ·降沈하는 作用을 하는 時期 秋(清涼) 冬(冷冽)
自然	·少陽之氣는 泉下에서 始作하여 陰을 이끌고 올라가서 天地人의 上部인 天之分에 있게 되므로, 百穀과 草木이 모두 이때에 싹이 터 나옴. ·立夏에 이르러 少陰의 火가 太虛(宇宙)에 熾盛하면 草木이 茂盛하고 가지는 늘어지며 잎은 퍼짐. (陽之用·陰之體)	·天에서 처음으로 下降하여 陰을 좇아 내려가 地에 到達하면, 金이 燥을 떨쳐 일으키므로 바람이 날리고 서리가 내리니 萬物이 모두 떨어지고 그 가지만 남게됨. ·冬에 이르면 少陰의 氣가 다시 泉下로 潛伏되어 물이 얼고 땅이 갈라지며 萬物이 周密해짐. (陰之用·陽之體)
人體	·飲食이 胃로 들어가면 精氣가 먼저 脾로 運輸되고 上으로 肺로 들어가서 春夏의 숨을 上行하여 周身을 滋養함. ☞ 清陽爲天	·上升이 다하여 膀胱으로 下輸되면 秋冬의 숨이 運行하여 糟粕을 傳化하므로 味가 바뀌어 排出케 됨. ☞ 濁陰爲地

선하며, 그 다음으로 萬物과 外部와의 內外 구분에 의해 出入이 생기듯이 인체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즉 자연계에서의 天地에 해당하는 父母의 兩精이 交感하여 하나의 개체가 먼저 만들어지고 母胎에서 출생한 후에는 外部의 氣에 의존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脾胃가 外部와의 出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으며 脾를 後天之本이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뜻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內外의 出入을 통한 氣의 위치이동은 水穀으로 대표되는 地味 뿐만 아니라 天氣도 있을 것이나 이 때의 水穀之氣는 天氣가 들어오는 것을 따르

로 表現된다는 것과 清濁升降의 生理를 하나의 논지로 이어 나갔다.

또한, 그 升降의 본질에 대해서도 일관된 논지를 펴게 되는데 그는

升已而降 降已而升 如環無端 運化萬物 其實一氣也 設或陰陽錯綜 勝復之變 自此而起<sup>20)</sup>

20) 李東垣 外五名, 『東垣十種醫書』p.116 『脾胃論·天地陰陽生殺之理在升降浮沈之間論』

上升이 다하면 下降하고 下降이 다하면 上升하여 고 리처럼 끝없이 萬物을 運化시키는데 그것은 實際로 하 나의 氣가 作用하여 變化된 것이니, 設或 陰陽이 錯綜 하고 勝復의 變化가 있더라도 모두 이 하나의 氣가 循環 하는 中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여 如環無端하는 자연계 기운의 升降에 대해 서 氣一元論의인 一氣의 순환으로 보았다. 그리고 天人 相應으로 나타나는 인체에서의 변화상에서도 그 一氣 를 위주로 설명하게 된다.

眞氣 又名元氣 乃先身生之精氣也 非胃氣 不能滋之. 胃氣者 穀氣也 榮氣也 運氣也 生氣也 清氣也 衛氣也 陽氣也 又天氣 人氣 地氣 乃三焦之氣 分而言之則異 其實一也 不當作異名異論而觀之<sup>21)</sup>

眞氣 또는 元氣라고 하는 것은 몸생기기 이전의 精氣로 胃氣는 穀氣, 榮氣, 運氣, 生氣, 清氣, 衛氣, 陽氣 이며 또한 天氣, 人氣, 地氣로 곧 三焦之氣이니, 區分 하여 말하면 다르나 그 實은 하나이므로 異名, 異論을 지어서 살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러한 東垣의 주장은 韓醫學 이론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여러 계통으로 나뉘어 설명되는 것 에서 오는 混沌을 일축시키고 아울러 분화된 상태보다 一氣로의 통일된 上位概念에서 인체를 이해하려 하였 던 것이며, 인체에서 자연계의 一氣에 해당하는 근본을 胃氣로 보았으니 결국 東垣은 인체를 胃氣라는 一氣의 升降순환이 일어나는 터전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 리고 이러한 胃氣라는 一氣의 如環無端한 升降에 대해 서도 天人相應에 의해 자연계의 春夏秋冬의 升降의 변 화가 그대로 인체에 반영됨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 다.

胃氣和平 榮氣上升 始生溫熱 溫熱者 春夏也 行陽二 十五度 六陽升散之極 下而生陰 陰降則下行爲秋冬 行陰 道 爲寒涼也.<sup>22)</sup>

21) 李東垣, 앞의 책 p.112 『脾胃論脾胃虛則九竅不通論』

胃氣가 和平하면 榮氣가 上升하여 비로소 溫熱이 생 하는데 溫熱은 春夏와 相應하므로 陽으로 二十五度를 走行한다. 六陽의 升散함이 極度에 이른 것은 다시 내 려가 陰을 생하고, 陰이 下降하면 收斂下行하는 秋冬이 되어 陰道를 行하므로 寒涼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胃氣라는 一氣의 순환은 스스로 순 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脾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脾胃의 관계와 脾氣의 구체적인 작용에 대해서는 『素 問太陰陽明論』에 나타난 '胃는 직접 다른 臟腑와 四肢 의 經脈에 精氣를 운반하지 못하고 脾에 의지해서 인 체의 각부위에 精氣를 운반하며, 脾에 病이 생기면 脾 가 胃를 위하여 津液을 운반시킬 수 없으므로 四肢가 水穀의 精氣를 받을 수 없게 됨'을 밝힌 부분<sup>23)</sup>과 『素 問經脈別論』에 나타난 '飲과 食이 각각 胃로 들어온 후 에 脾에 의해서 散精되는 것'을 밝힌 부분<sup>24)</sup>을 근본으 로 하여 인식하였다.

이렇듯 인체에 대한 주된 세력을 脾胃로 정의한 뒤 인체에서의 변화 양상에 대한 敷衍 설명이 나타나게 된다. 즉,

若夫順四時之氣 起居有時 以避寒暑 飲食有節 及不暴 喜怒 以順神志 常欲四時均平而無偏勝則安 不然 損傷脾 胃 眞氣下溜 或下泄而久不能升 是有秋冬而無春夏 乃生 長之用 陷於殞殺之氣 而百病起 或久升而不降 亦病焉<sup>25)</sup>

22) 李東垣, 앞의 책 p.112 『脾胃論脾胃虛則九竅不通論』

23) "帝曰 脾病而四肢不用 何也? 岐伯曰 四肢 皆稟氣於胃而不得至經 必因於脾乃得稟 也.

今脾病 不能爲胃行其津液 四肢不得稟水穀氣 日以衰, 脈道不利, 筋骨肌肉 皆無氣以生故不用"

24) "食氣入胃 散精於肝 淫氣於筋 食氣入胃, 濁氣歸心, 淫精於脈. 脈氣流經, 經氣歸於 肺, 肺朝百脈, 輸精於皮毛.

毛脈合精, 行氣於府. 府精神明, 留於四藏, 氣歸於權 衡. 權衡以平, 氣口成寸, 以決死生.

飲入於胃, 遊溢精氣, 上輸於脾. 脾氣散精, 上歸於 肺, 通調水道, 下輸膀胱. 水精四布,

五經並行, 合於四時五藏陰陽, 揆度以爲常也"

25) 李東垣, 앞의 책 p.116 『脾胃論天地陰陽生殺之理在

무릇 四時의 氣候에 順應하고, 起居를 바르게 하여 寒暑를 避하며, 飲食을 節度있게 먹고, 暴喜·暴怒하지 않으므로써 神志를 保養해야 하니, 恒常 四時의 氣候에 順應하여 偏勝함이 없으면 萬物이 便安하나 그렇지 않으면 脾胃가 損傷되어 眞氣가 下溜하고 或은 下泄하며 오래도록 上升하지 못하니, 이는 秋冬의 氣運은 作用하나 春夏의 氣運은 作用치 않는 즉, 生長의 作用이 殞殺之氣에 下陷한 것이므로 百病이 發生하게 되며, 또는 오래동안 上升하여 下降하지 않는 것도 역시 病이 發生하게 된다

이러하여 인체 疾病발생의 대강을 四時陰陽에 대한 不調로 보고, 그 중에서도 脾胃가 傷함으로 인하여 胃氣의 下溜에 의해 여러 疾病으로 分化됨을 말하였으며 이 모든 상황을 升降이라는 측면에서 살폈다. 또한 升降에서도 자연계의 春夏의 生長之用을 중요시하고, 인체에서는 脾胃의 升陽을 강조한 것이 사실이나 '久升而不降 亦病焉'이라하여 過猶不及의 상황에 대한 升降의 조절도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대체적인 부연이라면 좀더 구체화하여 나타난 부분도 있으니 九竅不通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즉, 五臟의 氣는 九竅로 上通하는데 五臟은 六腑에서 氣를 받고, 六腑는 胃에서 稟受받게 되므로 胃가 病들면 자연히 六腑의 氣가 단절되어 陽道가 不行하고 陰火가 上行하게 되며, 陰火가 土의 위치를 乘하게 되면 穀氣가 막혀서 胃氣가 下溜하고 清氣를 升하지 못하며 九竅를 不利하게 한다고 여겨 九竅의 병은 모두 升降失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것이 바로 『素問通評虛實論』 "頭痛耳鳴 九竅不利 腸胃之所生也"의 뜻이라고 하였다.

前述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자연계 뿐만 아니라 天人相應으로 인체에서도 변화양상은 다양하나 실지는 一氣의 升降일 뿐이며, 인체에서는 胃氣가 그 一氣에 해당하고 胃氣는 脾의 도움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전신의 순환을 원활하게 퍼져된다. 또한 구체적인 병변의 상태도 그 본질은 四時陰陽에 잘 맞추어 養生하지

升降浮沈之間論』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胃氣虛에 의한 胃氣 下溜와 그에 의한 陰火의 上乘으로 여러 疾病이 발생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 (3) 升降論에서의 陰火의 의미

東垣의 陰火論은 『素問調經論』의 '陰虛內熱'을 밝히는 內容<sup>26)</sup>에 根源을 둔 것으로 그 원인은 內傷脾胃로 인한 中氣不足이며 下焦의 陰盛으로 氣化되지 않고 鬱하여 發生한 內熱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陰火는 東垣이 주장하는 비위 중심의 승강에서 失調가 나타날 때 반드시 수반되는 개념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는데, 그의 저서인 『內外傷辨惑論』과 『脾胃論』을 통해서 볼 때 다양한 용어로 나타나므로 살펴 보도록 한다.

먼저 "陰火"를 뜻하는 여러 명칭을 살펴보면

·少加黃蘗 以救腎水 能瀉陰中之伏火 如煩猶不止 少加生地黃 補腎水 水旺而心火自降<sup>27)</sup>

·若飲食失節 寒溫不適則脾胃乃傷. 喜怒憂恐 損耗元氣 既脾胃氣衰 元氣不足 而心火獨盛 心火者陰火也. 起於下焦 其系繫於心 心不主令 相火代之 相火 下焦包絡之火 元氣之賊也 火與元氣不兩立 一勝則一負 脾胃氣虛則下流於腎 陰火得以乘其土位.<sup>28)</sup>

·所不勝乘之者 水乘木之妄行而反來侮土... 下元 土盛剋水 致督任衝三脈盛 火旺煎熬 令水沸騰而乘脾肺 故痰涎唾, 出於口也.<sup>29)</sup>

에서와 같이 陰中之伏火, 心火, 相火, 下焦包絡之火, 火(火與元氣不兩立에서 말하는 부분), 督任衝三脈盛(脾

26) 帝曰 陰虛生內熱 奈何. 岐伯曰 有所勞倦 形氣衰少 穀氣不盛 上焦不行 下脘不通 胃氣熱 熱氣熏胸中 故內熱.

27) 李東垣, 앞의 책 p.39 『內外傷辨惑論 補中益氣湯 立方本旨』

28) 李東垣, 앞의 책 pp.91-92 『脾胃論 飲食勞倦所傷始爲熱中論』

29) 李東垣, 앞의 책 p.78 『脾胃論 脾胃盛衰論』

胃盛衰論에서는 督任衝三脈爲邪로 표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렇듯 다양하게 표현됨으로 인해서 陰火를 몇가지로 분류하려는 견해가 종종 있다. 즉, 心腎關係 心胃關係 衝任督脈의 關係등의 위치 관계로 중심으로 나누거나<sup>30)</sup> 혹은 陽氣不升 伏留化火, 津傷血弱 內燥化火, 穀氣下流 濕火相合, 心君不寧 化而爲火 등의 구체적인 病機의 차이를 부각시켜서 분류<sup>31)</sup>하려는 시도가 있다. 물론 이러한 분류가 나오게 된 것은 인체에서 나타나는 疾病의 다양한 症狀을 이해하려는 의도이기에는 하겠으며, 표현의 혼란에 의한 당연한 결과일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혼재된 의미를 胃氣라는 一氣의 升降운동 측면에서 살핀다면 東垣이 뜻한 바는 한가지로 요약되어야 하겠다.

즉 陰火의 原因은 飲食不節, 勞役太過, 寒溫不適, 七情內傷에 기인한 元氣 즉, 脾胃氣의 損傷이다. 그 다음 과정은

- ① 清氣인 胃氣가 不升하니 動的인 상태에서 靜인 상황으로 轉移 되어 胃氣가 閉塞되고,
- ② 胃氣가 閉塞되니 水穀之精微를 運化하지 못하여 濕邪의 형태를 띠게 되고,
- ③ 시간이 지나서는 濕氣가 陰邪이므로 下流하고, (土克水로 이해할 수 있음)
- ④ 下流한 脾胃의 濕氣가 下焦 腎間의 기운을 막게 되니 당연히 停滯되고,
- ⑤ 停滯되어서는 상승하고자하는 下焦의 기운에 반대되어 寒이 아닌 熱로 化하게 되고,
- ⑥ 그 熱은 炎上하는 성질에 힘입어 上衝하는 것이다.

으로 요약된다. 물론 東垣도 언급 하였듯이 陰火의 발생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그 원인의 세분화와 臟腑間의 盛衰, 運氣의 영향 등으로 여러 갈래로 나뉘어 진다고 할 것이나 그것은 전적으로 因人制宜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한다. 즉 모든 조건이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 기본적인 藥物의 쓰임새도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를 살펴야하

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升降 出入을 이루고 神機와 氣立의 특성을 고루 갖추고 하나의 太極을 이루는 '器'를 이해하는 방법일 것이다.

또한 相火에 대하여서는 상세한 언급은 없는데, 相火라는 용어가 東垣과 가까운 시대의 인물인 丹溪를 포함한 여러 醫家들에 의해서 혼재된 개념으로 주장되므로 相火와 東垣의 陰火와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도 의의는 있겠다. 그러나 승강이라는 하나의 상위 관점으로 보기로 한다면 여기에서 東垣이 바라본 陰火가 분명히 '火與元氣不兩立'이라 하였듯이 元氣(胃氣)의 升降失調에서 오는 결과인 邪火로 보아야 하겠으며, 이는 『內經陰陽應象大論』에서 少火, 壯火로서 크게 대별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2) 命門을 중요시하는 관점

### (1) 韓醫學에서 命門의 설정

命門의 위치가 어디이며 그 기능이 어떠한가를 논하기 전에 실제로 어떤 형상을 갖추지 않은 命門이라는 부분을 인체 내에 설정하게된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단순히 인체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전체적인 陽火의 작용을 중심으로 논리를 세우기 위하여 설정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命門이라는 글자 자체에 나타나듯이<sup>32)</sup> 생명이 드러나고 사라질 수 있는 일종의 門戶처럼, 인체가 유한적인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에 대한 필연적인 이유<sup>33)</sup>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32) 三焦도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그 形體가 없고 단순히 현상으로 나타나는 작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지와 그 천지의 교감으로 생긴 만물중의 하나인 인체에 天地人 三才의 작용이 그대로 나타남을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三焦가 決瀆之官 水道出焉으로 如霧 如瀉 如瀆의 인체 수액 대사의 변화상을 나타내지만 그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火의 작용이듯이, 생명 현상이라는 자체가 陰陽의 조화를 전제로 하지만 動的인 陽의 운동이 전체 생명현상을 주도하는 식으로 나타나므로 焦라는 글자를 사용하였다고 보겠다.

33) 張介賓이 『類經附翼大寶論』에서 '夫生之門 卽死之戶'라하고 '所以人之盛衰安危 皆繫於此者 以其爲生氣之源'이라하여 인체의 生氣之源에 해당하는 命門이 지니는 生死에 대한 의미를 밝힌 부분에서도 이러한 의미를 살필 수 있다. — 張介賓 『類經附翼』p.275

30) 丁光迪, 東垣學說論文集 PP.79-81

31) 裘沛然, 中醫歷代各家學說 p.97-98

그러므로 후세 의가들에 의하여 人身之太極, 水火之宅, 元陰元陽之府 등의 의미로 논의되고, 승강론적으로 볼 때는 승강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水穀之氣와 天氣의 흡수를 통하여 인체에 필요한 氣를 흡수하고 그 氣를 사용한 후에 濁氣를 내보내게 되는 內外의 出入을 이루어지고, 개체내에서의 臟腑와 經絡의 上下 升降운동을 통하여 氣운을 유용하게 사용하여 나간다고 할 때 命門의 개념이 없다면 생명이 유한적인 이유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작용면에서는 단순히 五臟 중의 하나인 腎, 특히 그중에서도 腎陽의 기능적인 의미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五臟六腑가 활동할 수 있는 근원적인 원동력을 제공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부분이 命門이라는 本體가 用으로 드러날 때 다양한 부분으로 제시될 수 있는 이유이다.

## (2) 升降의 原動力이 되는 命門

命門에 관한 『難經』의 최초기록 이후 明代의 李時珍 張介賓 孫一奎 趙獻可 虞搏 등의 학자들에 의해 계통적인 命門學說이 나타나기까지 命門의 위치나 기능 및 相火, 三焦, 心包 등의 개념과의 연관성 그리고 다른 臟腑와의 관계(특히 腎) 등이 여러 갈래로 논의 되어 왔으며, 그와 관련한 명칭 또한 赤宮, 丹田, 胞, 小心, 子宮, 腎間動氣, 性命之門 등 여러가지의 형태로 命門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이 醫史學的인 사실이나 여기에서는 다양한 命門學說의 내용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 보다는 升降에서의 命門의 의미에 대하여 큰 맥락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는데, 대부분의 주장들이 『難經』의 經文에 근거하여 파생하였으므로 『難經』의 본지를 살펴보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여기에 덧붙여 命門의 의미가 체계화된 明代의 이론을 종합하여 살펴 보도록 한다.

命門에 관하여는 『難經』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처음<sup>34)</sup>으로 간단하면서도 포괄적인 命門의 개념

34) 『素問陰陽離合論』과 『靈樞根結』, 『靈樞衛氣』에도 命門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지만 그것은 足太陽膀胱經의 終結點인 睛明穴 혹은 눈(目)의 내자를 가리키는 의미[命門者 目也]가 강하므로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을 규정하고 있다.

〔八難〕 諸十二經脈者, 皆係於生氣之源. 所謂生氣之源者, 謂十二經之根本也, 謂腎間動氣也.

此五臟六腑之本, 十二經脈之根, 呼吸之門, 三焦之原, 一名守邪之神. 故氣者, 人之根本也

〔三十六難〕 腎兩者 非皆腎也 其左者爲腎 右者爲命門 命門者 諸神精之所舍 原氣之所繫也

男子以藏精 女子以繫胞.

〔三十九難〕 其左爲腎 右爲命門. 命門者 謂精神之所舍也 男子以藏精 女子以繫胞 其氣與腎通.<sup>35)</sup>

이렇게 『難經』에서 命門에 관한 의미 규정을 한 이후에 후세 의가들의 논란은 難經 經文의 영향 아래에서 거듭나타나게 되었고, 특히 '其左者爲腎 右者爲命門', '男子以藏精 女子以繫胞', '其氣與腎通' 등의 표현은 각각 左腎右命門, 子宮即命門<sup>36)</sup>, 兩腎即命門<sup>37)</sup> 등으로 命門의 위치에 대하여 여러가지 주장을 불러 일으키게 하였다.

그런데, 『難經』에서의 左腎右命門의 의미는 궁구해 볼 필요가 있다. 兩腎의 左右 어느 한 쪽이나 혹은 腎 그 자체가 命門이라는 뜻 보다는 命門이라는 본체의 작용이 현상적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을 바로 腎으로 볼 수 있으며, 좌우를 나누게 된 것은 腎이 藏精, 主水하는 陰臟이지만 命門의 주된 기능이 腎陽으로 발

升降論에서의 命門의 의미에서 거리가 있으므로 제외시킨다.

35) 本間祥白, 『難經之研究』p.46, 242, 255

36) 이 때의 子宮은 여자의 해부학적인 子宮(Uterus)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兩腎中間, 氣海 關元 사이에 있는 子宮이며 男女의 通稱으로 여자에 있어서는 產門이고 남자에 있어서는 精室(精囊)이며 이곳에 腎이 藏精하는 곳이라고 본 것이다.

37) 明代 虞搏의 주장으로 '左腎右命門' 이론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이론이라 하겠다. 그는 '右腎만을 가리켜 命門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兩腎이 본래 眞元의 근본이며 性命의 所關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難經』에 나타난 '其左者爲腎 右者爲命門'의 표현을 그 작용적인 측면에서 살핀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위치의 지정을 도모하려는 뜻에서 비롯된 주장이라 볼 수 있으며 아울러 그가 말한 兩腎이 곧 命門이라고 하는 주장도 命門의 실제 작용보다는 그 위치를 국한시키는 것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현되는 부분을 동시에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陰陽의 속성을 표시한 것으로, 左肝右肺나 左血右氣와 마찬가지로 左右를 陰陽의 속성으로 분류하여 설명하는 방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또한, '女子以繫胞' 라는 의미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 즉, 인체의 가장 근본되는 氣의 흐름이라면 12正經 이외에 陽脈之海와 陰脈之海에 해당하는 奇經의 任督脈을 들 수 있는데, 이 任督脈은 모두 胞中에서 起始하여 각각의 경로를 밟게 된다는 의미를 본다면 難經에서의 표현이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虛辭가 아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이며 아울러, [八難]에서의 生氣之源者, 謂十二經之根本也, 謂腎間動氣也. 人之根本也 라는 내용과 [三十六難], [三十九難]에서의 '男子以藏精 女子以繫胞' 라는 내용이 지니는 含意가 서로 별개가 아님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바로 張介賓이 언급한 子宮이 곧 命門이라는 醫論을 펼치게 되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命門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 [八難]에서는 '十二經脈과 五臟六腑의 근본이 되고 아울러 三焦의 근원이 되는 生氣之源이 모두 腎間의 動氣에서 유래한다'는 표현에서 腎間動氣가 곧 命門이라는 이론<sup>38)</sup>이 나왔으며 이외에도 『素問·刺禁論』에 나타난 '七節之傍, 中有小心'에 근거하여 兩腎之間 小心即命門의 주장<sup>39)</sup>도 나오게 되었는데 이러한 腎間에 命門의 위치나 작용을 두는 이론은 明代에 盛行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으로 나아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韓醫學이 易學의 영향을 받아 이론적으로 더욱 발달된 것으로서 命門을 人身의 太極으로 上程하게 되고, 命門이 兩腎間에 위치

하면서 坎中 一陽의 象(☵)으로 발전시키게 되어 命門火의 개념에 水의 의미를 附加시키게 되는 이론적 성장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들 사이에서도 공통되게 나타나는 것은 그 위치 개념 보다는 그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며, 굳이 위치를 말한다면 腎의 위치와 관련이 많다는 정도이다. 그 기능에 대한 공통된 주장은 다음과 같다.

i) 유한적 삶에 대한 필연적인 이유가 되어 생명의 근본이 되고 五臟六腑와 十二經脈의 작용을 나타내게 하는 元陰 元陽이 작용, 즉 元氣之本이 되고 구체적으로는 心의 神明, 肺의 治節, 肝膽의 謀慮決斷, 脾胃의 腐熟水穀, 腎의 作強과 技巧, 膀胱의 水液代謝, 三焦의 氣化, 大小腸의 傳道와 收盛등의 기능 발휘를 하게 하는 動氣로서의 원동력이 나타난다.

ii) 精神之所舍로 精神作用의 근본을 이루고, 女子胞와 男子의 精室의 의미로 生殖에 관여하는데 後者는 위치 뿐만 아니라 작용에 있어서도 腎의 포괄적인 의미에 합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실제 임상상에서는 腎에 대한 조절이 주되게 이루어 진다.

이러한 命門의 通時的인 의미를 升降論의 측면에서 본다면, 명문은 形體 생성 이전의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본체(體)의 의미는 人身之太極이라 하듯이 그 의미가 다소 哲學的이다. 그러나 그 작용(用)은 인체 전신에 걸쳐 두루 현상화되는데, 先天之本으로 臟腑의 陰液을 관장하는 腎陰과 臟腑의 陽氣를 주관하는 腎陽에서 命門의 발현상이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므로 腎의 작용을 命門의 작용으로 부각시켰다. 특히 '腎의 二陰 가운데 있는 一陽이 生氣의 근원이다' 라는 표현이 坎卦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주 제기 되어왔는데, 바로 이 二陰 중의 一陽으로 표현되는 一氣가 바로 人身의 元氣이자 腎間動氣로 명명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세분화된 臟腑에서 나타나는 命門의 작용을 논하기 이전에 그보다 상위개념에서 보자면 이 一氣의 순환이 바로 인체 승강의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8) 明代 孫一奎의 주장으로 그는 命門이 비록 兩腎 중간에 위치하나 일종의 生生不息하는 動氣의 所在일 뿐 결코 形質을 갖추고 있는 臟器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39) 明代 趙獻可의 주장으로 그는 命門을 一身의 太極에 비유하면서 心보다 상위 개념인 性命之門으로 稱하고 人身의 主는 心이 아니고 眞君眞主에 해당하는 命門이라 하였고 右腎命門을 부정하고 命門은 兩腎之間 一寸五分에 위치하여 一身의 중앙이 되며 一陽이 二陰중에 陷入한 象으로 命門의 작용을 眞水와 相火로 설명하였다.

물론 이 一氣의 승강을 上下의 水火之臟으로 나누어 보면 '水火者 陰陽之徵兆也' 라 하여 水火의 작용으로 陰陽의 활동을 나타내듯이 인체에서도 五臟에서 水火의 속성을 띤 五臟, 즉 心과 腎을 兩極으로 인체 승강 순환을 설명하게 되니 그것이 心腎交濟이며, 그것의 안정된 고정성보다 활동하는 생명력을 중요시하여 水升火降이라는 임상상의 접근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그 升降의 근본에는 『難經·八難』에서 '生氣之源. 十二經之根本 腎間動氣 五臟六腑之本 三焦之原' 이라 하고 '故氣者 人之根本也' 라고 하였으니 인체는 腎間動氣라는 命門 一氣가 승강하는 터전으로 볼 수 있고, 換言하자면 인체 승강의 원동력으로 命門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다.

곧, 命門은 그 본체(體)에 대한 의미는 형이상학적 인 요소를 다분히 지니고 있으니 性命之門이나 人身의 眞君眞主로서의 太極에 해당하고 二陰 가운데 一陽이 있는 坎卦의 표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命門의 작용(用)은

첫째, 주로 腎과 연계하여 표현되나 이 때의 腎이라는 표현도 先天之本이라는 표현에 가까운 뜻으로 五臟중의 하나로서의 腎이 아니라 다른 五臟六腑의 근본이 된다는 의미가 강하다.

둘째, 임상상에서는 단순히 五臟중의 하나로서의 腎을 통해서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그 중에서도 陽火作用을 강조하여 命門火衰, 腎陽虛 등의 혼재된 개념도 나타난다.

이렇듯 命門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지만 升降측면에서는 모두 유용한 개념으로 사용되며, 脾胃는 命門과 비교한다면 命門의 작용이 水穀의 腐熟과 津液의 생성이라는 부분으로 드러나는 곳이며 升降의 물질적 변화 요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하겠다.

### 3) 脾胃와 命門이 升降에서 가지는 綜合的 意味

앞에서 脾胃와 命門이라는 주된 승강의 원동력을 기

준으로 이야기하였으나 인체는 결국 脾胃나 命門 어느 하나에만 국한되어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 보완적인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脾胃와 命門을 동시에 두고 升降에 관한 상호의 연관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東垣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脾胃의 인체에 대한 의미를 간략하게 나타낸 부분이 있다.

地氣者人之脾胃也 脾主五臟之氣 腎主五臟之精 上奉于天 二者俱主生化 以奉升浮 是知春生夏

皆從胃中來也 故動作飲食 皆各得其所 必清必淨 不令損胃之元氣 下乘腎肝及行秋冬殞殺之令

則亦合于天數耳.<sup>40)</sup>

地氣는 사람에 있어서 脾胃가 되는데, 脾는 五臟의 氣를 主하며 腎은 五臟의 精을 主하여 天을 上奉하니, 脾胃가 함께 生化를 主함으로써 升浮가 이루어지므로, 春生夏長이 모두 胃中으로부터 由來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動作과 飲食은 各各 適當한 法을 얻어 반드시 淸하고 淨하게 하여, 胃의 元氣가 損傷되어 아래로 肝腎을 乘하지 않게 하고 秋冬의 殞殺之令을 行하지 않게 하면, 亦是 하늘로부터 받은 壽命을 누릴 수 있다.

東垣도 이렇듯 腎이 五臟의 精을 주관함을 밝히고 脾胃의 生化작용이 중요함을 인정하였으나 근본은 胃의 元氣에 더욱 치중하였음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命門의 작용이 臟腑와 經絡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蓋脾胃不足 不同餘臟 無定體故也. 其治肝心肺腎 有餘不足 或補或瀉 惟益脾胃之藥爲切.<sup>41)</sup>

대개 脾胃不足은 나머지 臟과 달리 定體가 없기 때 문이다. 그 肝心肺腎의 有餘不足을 或補或瀉하여 다스 리는 데는 오직 脾胃를 益하는 藥이 切實히 必要하다.

과 같은 東垣의 주장을 보면 脾胃의 失調에 의한 他

40) 李東垣, 앞의 책 pp.116-117『脾胃論·陰陽壽夭論』

41) 李東垣, 앞의 책 pp.77-78『脾胃論·脾胃盛衰論』

臟으로의 영향이 크다고 보겠는데 이로써 東垣이脾胃元氣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밝히는 이유를 살필 수 있고, 이는 분명히 人身의 原動力으로서脾胃와 命門이 적어도 작용면에서는 거의 대등한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각각의 양면을 따로이 비교하지 않고 인체가 승강과 출입이 동시에 일어나는 생명체임을 두고 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東垣의脾胃를 중시한 이론에서는 인체의臟腑經絡이胃氣라는一氣에 의존하고 또한 그胃氣를 전신에 퍼뜨리는脾의 작용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실제父母의兩精이相搏하여 태어난 뒤 인체라는形體를 띠고, 그 인체는 유형적인 물질 즉水穀의出入에 근거하여 생명을 영위하므로後天之本이 된다는 표현을 하게 된다. 이는命門이라는 본체가形體 생성이전의無形의元陰元陽에 해당하고 그 작용은形體 생성이후에 주로腎의 작용을 빌어서水火의交濟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보면脾胃는升降이 이루어지기 위한 물질적인氣의 변화 요소를 제공하였다는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옳겠다.

### III. 結論

i. 宇宙의 운동변화는天地清濁之氣의上下升降에 기초하며 이러한上下升降으로 대표되는天地의交感에 의해萬物이 생성되고, 이萬物은外界와 분리되면서出入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그 개체가 가진神의發現狀에 따라外界에 대해主體的으로 생활하느냐 아니면外氣의 영향 아래에順應하며살아가느냐에 따라神機와氣立으로 나뉜다.

ii. 升降과出入이萬物이 지니는 생명활동의 다양한 변화상을 대변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중에서升降이 차지하는 위치가 체내의氣의 변화상이라는 면에서後世醫家들의 눈술에서도水升火降이나心腎交濟 등의上下升降이론으로 발전하게 되는 하나의因由가 되었고, 內外的出入은升降이 이루어지는 물질적인 변화의 요소, 즉 內外的氣의 위치 변화를 강조하는 측면으

로 작용하였다.

iii. 東垣은『內經』의 내용중天地의升降運動에 의해四季의生長收藏이 그치지 않게 되며, 그에 의한人身의臟腑運動 또한升降으로表現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자연계의氣의升降에 대해서氣一元論의인一氣의순환이 있듯이 인체에서도 자연계의一氣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니 그 근본을胃氣로 보고, 인체를胃氣라는一氣의升降운동이 일어나는 터전으로 생각하였다.

iv. 命門은 생명이 드러나고 사라질 수 있는 일종의門戶처럼 生의 근본에 대한 철학적인〔體〕의 개념과臟腑와經絡을 포함한 인체의先天無形之元氣로서의〔用〕의 개념을 동시에 가지는데 그 작용은全身을 통하여 나타나고, 특히腎陽의 작용으로 대표된다. 또한元陰元陽의 작용이水火를 통해서 표현되므로 인체에서는水火의 대표적인臟인心腎을 통한水火交濟가 나타나고, 여기에 생명의動的인 순환을 강조하게 되어水升火降으로 구체화되는데, 命門이 그水升火降의原動力이 된다.

v. 水穀之氣의 구체적인納入을 담당하는脾胃가升降이라는 순환체계를 통하여臟腑에氣의수송을이루는 것도 사실이나, 큰 관점으로 본다면脾를 통한胃氣라는一氣의순환도命門의 작용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으므로,脾胃는命門의 작용이水穀의腐熟과津液의 생성이라는 부분으로 드러나는 곳이며升降이 일어나기 위한 물질적 변화 요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실질적인上下升降의 원동력은命門으로 포괄하여야 하겠다.

### IV. 參考文獻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2.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3. 張介賓: 類經類經附翼, 서울, 大星文化社, 1982
4. 李東垣 外五名: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1

5. 朴贊國: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注釋(上), 서울 慶熙大學校 出版局, 1998
6. 李聰甫·劉炳凡 編著, 金元四大家學術思想研究, 湖南省中醫藥研究所, 成輔社 影印, 1985
7. 楊力 著, 金忠烈, 洪元植 외 옮김, 周易과 中國醫學, 서울, 法仁文化社, 1995
8. 金碩鎮: 大山周易講解, 서울, 대유학당, 1993
9. 金完熙·金廣中 編著: 한의학의 형성과 체계, 대구, 중문출판사, 1991
10. 寇華勝: 中醫升降學, 중국, 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90
11. 裘沛然: 中醫歷代各家學說, 중국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12. 丁光迪: 東垣學說論文集, 중국 人民衛生出版社, 1984
13. 本間祥白: 難經之研究, 일본, 正言出版社, 1965

KYOBO  
교보문고